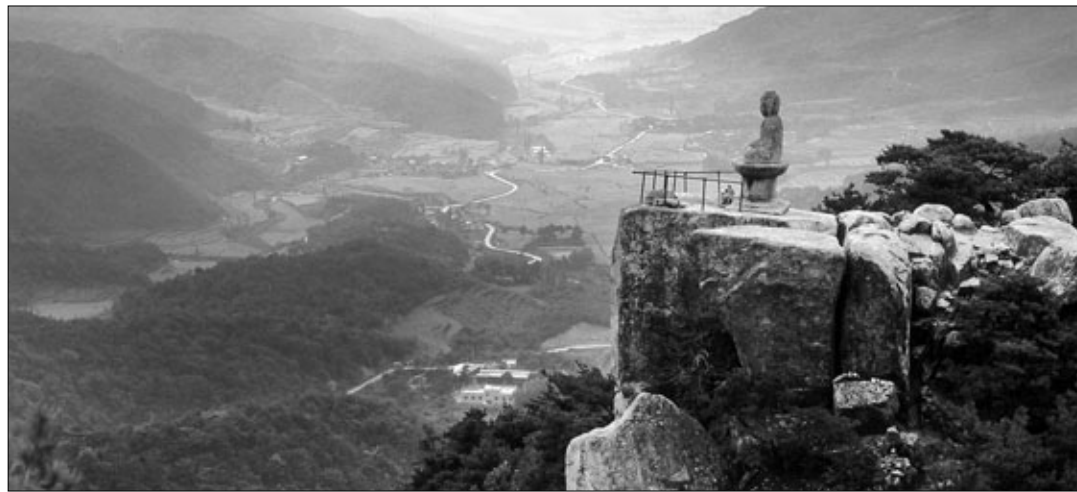




가늘고 뾰족한 7층 석탑들이 불규칙한 운율로 서있는 화순 운주사 전경.



오목한 연화좌대위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장관인 창녕 관동사.

절집 건축은 비율수록 채워지고
채울수록 비워내야 하는 어려우
면서도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편집자주〉

절집은 채움과 비움이 절묘하게 조화된 건축물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2
김봉렬 글 | 관조스님 사진 | 컬처그라피 펴냄 | 2만원

이 책은 건축 학자이자 한국에 숭종합학교 총장인 김봉렬 교수의 글과 불교 사진의 대가인 관조 스님의 사진이 어우러진 우리 옛절 답사기다. 2002년에 출간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1>의 후속작인 동시에, 다음 책을 내겠노라는 약속을 7주기에 맞춰 행동에 옮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전작인 제 1권이 훼손되는 사찰의 건축적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면, 이번 책은 건축학자인 저자 자신과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에 대한 자기 고백서 형식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숨

겨진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건축학자로서 대상들에게 던진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냈고, 화려한 수사과 목적을 가진 설득보다는 오로지 사유의 깊이와 문장의 솔직함을 담아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책에는 전작에 실리지 않은 절집과 금강산 보덕암, 만폭동의 사암들까지 모두 21 곳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미항사, 법주사, 선운사뿐만 아니라 영주 성혈사 나한전, 청양 장곡사처럼 잘 알려진 사찰은 아니지만 건축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뛰어난 절집을 다채롭게 소개했다.

우리 사찰 건축에 대한 애정을 담아, 건축학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과 엄밀함을 통해 사찰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미항사 등 22개 사찰의 건축적 가치 설명

구도적 건축, 수직절벽에 건물 앉힐 수 있어

건축서 내려 놓아야 할 최후의 것은 '중력'

옛 절집의 건축정신,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

되짚어 가며 우리 가람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승려 사진가인 관조 스님의 담담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이 담긴 사진을 통해 옛 절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책에는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옛 절집의 모습들도 사진에 담겨 있다. 아스팔트로 닦인 길을 내고 현대식 건축 공법으로 건물을 세우기 이전, 구불구불한 산길로 이루어진 진입로와 오랜 시간 불심으로 세워진 건축물의 모습이다. 관조 스님의 사진을 통해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할 뻔했던 옛 절집의 모습과 김봉렬 교수의 글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옛 가람의 정신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다.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최후의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중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건축 발전의 역사는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다. 구도의 건축은 중력을 내려놓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 아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혔다. 건축에는 구조에 의한 아름다움

이 있다. 견고하고 안정된 건축물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구조는 너무나 평안한 안정을 누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상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거대한 지붕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가늘고 높은 전망탑이 산 위에 솟았을 때, 이를 아름답다 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 한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전망탑이 쓰러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고 설명한다. 좋은 예가 바로 금강산 보덕암이라는 것이다.

강진 무위사에 대한 저자의 감상 또한 맛깔나다. 무위사 극락전과 같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뛰어난 솜씨로 작품성까지 겸비한 장식은 오히려 건축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위사 극락보전의 골격은 간결하고 건실하다. 그 골격 사이에 끼워졌던 벽화들은 생명이 넘치고 다양하며 풍부하다. 튼튼

한 골격과 아름다운 장식들. 극락이란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 아닐까?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건축물에 있다."고 극찬한다.

절집은 채움과 비움이 조화된 건축물이다. 허(虛)한 곳은 보완하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털어 내며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옛 절집의 건축 정신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템플스테이가 인기 있는 이유 또한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을 정화시키고, 고민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진리란 특별하고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 아주 사소한 것에 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마음을 열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깨달음, 즉 자기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독특한 의례와 민중의 삶 조명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윤소희 지음 | 민속원 펴냄 | 4만2천원

이 책은 작곡가이자 음악인류학자인 저자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지를 돌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저자는 <한국 전통음악의 변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야금 산조와 대금 산조가 전조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레고리안 안찬트와 바하의 대위법과 비교해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06년에는 <대만불교 의식음악연구>로 한양대 박사 학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의례음악 연구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해 왔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저자

가 10년간 학술단체지에 발표해 온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인도를 비롯해 티베트, 동남아, 대만, 중국의 불교의례와 악가무는 그 지역의 독특한 의례 문화와 민중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 흥미롭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저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희귀음반시리즈로 발간한 <영남법패>를 악보로 채록해 악보해설집을 함께 펴냈다. 이 책은 현저서 촬영한 동영상과 음원 그리고 수백장에 이르는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아시아의 노래와 춤을 보는 듯하다. 김주일 기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사자후



정의 사회의 불교적 화두
소암 스님 지음 | 문지사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MB정권 이후 5년간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들을 묶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것을 차기 정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믿는다. 저자는 이런 글들을 통해 단순히 MB 정권의 실정과 실패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발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의도를 내비쳤다.

저자는 1987년 제 1평론집 <한국불교와 진로>를 펴낸 이후 26년만에 이번 제 6평론집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저자는

1980년부터 30년간 술한 사회용어를 만들고 보급해 온 우리시대의 불교적 멘토이자 실천불교 사상가이다.

특히 저자는 선순환, 선용, 악지식, 순기능, 역기능, 현실정치, 중도실용주의 등과 같은 어려운 불교용어를 쉽게 재해석하기도 했다. 또한 1987년 부산 민주화운동의 대표로 각종 시민운동을 18년간 펼치기도 했다. 시대정신과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써 내려간 저자의 글들은 구도자의 피나는 수도열정이요, 동시에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자후로 현실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적 상상력으로 쓴 동시



날아오른 발자국
글 박방희 | 그림 이자연 | 창개구리 펴냄 | 9천원

흔히들 한 권의 시집 속에서 좋은 시는 반타작도 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박방희 시인의 이번 동시집을 펼쳐 보면, 어느 것 하나 허투로 흘려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시정신을 구가하고 있다. 편편마다 수작이라 이름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과연 동시에서 출발한 시적 탐색이 불교와 동양 사상에 이르러 시와 동시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시인은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한 것일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실 '불교적 상상력으로 쓴 동시'라는 말은 혹시라도 '동시를 통해 불교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 썼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꺼려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동시집은 그러한 알팍한 기획물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것과 이 동시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서 불교적 상상력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물과 자연의 본질을 불교적 상상력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